

2026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데살로니가전후서

메시지 5

삼일 하나님의 체현인 교회

성경: 살전 1:1 상, 살후 1:1, 요일 1:1-2, 2:23-24, 요이 9

[살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살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요일 1:1-2]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시다. (2) [이 생명이 나타났습시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요일 2:23-24]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마다 아버지 또한 없으며,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 또한 있습니다. (24)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도 아들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 안에 거할 것입니다.

[요이 1:9]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빛나가 그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며,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I.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 살전 1:1 상.

[살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 A.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쓴 것이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로 구성된다.
- B. 이와 같이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믿는 이들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 1. 이것은 한 지방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에서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2.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속하지만, 유기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주님 안에 있다.

3. 신성한 생명과 본성 안에서의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은 믿는 이들이 교회생활을 위하여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러한 생활이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의 주제이다.

II. 교회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라는 것을 보는 것은 축복이다 — 요 1:12-13, 요일 5:11-12, 벨후 1:4.

[요 1:12-13]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¹³⁾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요일 5:11-12]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¹²⁾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벨후 1: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A.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다 — 살전 1:1.

[살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B. 이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실재와 실행에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 되고 있다. 삼일 하나님의 체현은 요소이신 아버지와 우리의 형상이신 아들과 우리의 표현이신 그 영을 가짐으로써 삼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에 비춘다 — 롬 12:2, 고후 3:18.

[롬 12: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C. 이것은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교회이다 — 살후 1:1.

[살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III. 삼일 하나님이 신약의 구조이다.

A.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 마 12:28.

B.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 마 28:19.

C.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 요 14:26.

D. “내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 요 15:26.

E.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 행 2:33.

- F.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 롬 8:11.
- G.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 갈 4:6.
- H.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 엡 3:16-17 상.
- I.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 아버지이십니다.” — 엡 4:4-6.
- J.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 히 9:14.
- K.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 벧전 1:2.
- L.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계 1:4-5 상.

IV. 요한의 서신들은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계시한다 — 요일 1:1-2, 2:23-24, 3:24, 4:2, 6, 13-14, 5:6, 11-12, 요이 9.

[요일 1:1-2]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시다. ⁽²⁾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요일 2:23-24]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마다 아버지 또한 없으며,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 또한 있습니다. ⁽²⁴⁾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도 아들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 안에 거할 것입니다.

[요일 3:24]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통해 압니다.

[요일 4:2]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요일 4:6]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광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요일 4:13-14]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¹⁴⁾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지금 또 증언합니다.

[요일 5:6]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일 5:11-12]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¹²⁾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이 1:9]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빛나가 그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며,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 A.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근원, 유일한 창시자,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창시하신 분으로 아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시작되고, 그분에게서 나온다 — 요일 1:2-3, 2:13, 15, 3:1, 4:14, 마 15:13, 롬 11:36, 고전 8:6, 엡 3:14-16.

[요일 1:2-3]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³⁾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일 2:13]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요일 2:15]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요일 3:1]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도록,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일 4:14]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지금 또 증언합니다.

[마 15:13]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내 하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마다 모두 뿌리째 뽑힐 것입니다.

[롬 11:36] 왜냐하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전 8:6]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또한 오직 한 분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엡 3:14-16]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¹⁵⁾ 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¹⁶⁾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와 함께 아들께서 영원한 생명의 표현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이 생명에 참여하고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 요일 1:2-3, 5:11-12.

[요일 1:2-3]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³⁾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일 5:11-12]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¹²⁾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2. ‘아버지’라는 칭호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는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 요일 3:1, 벤전 1:3.
 [요일 3:1]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도록,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벤전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 B.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 생명의 말씀과 생명은 모두 영원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시간 안에서 육체 되심을 통해 나타나신 아들 그리스도의 신성한 인격을 의미한다 — 요 1:1, 14.

[요일 1:1-2]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다. ⁽²⁾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명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1. 아들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으며 영원하시고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다 — 요일 2:13 상, 14 상.

[요일 2:13-14]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¹⁴⁾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낸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낸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죄로 가득한 마귀의 행위들을 파멸시키고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 요일 3:8 하.

[요일 3:8] 죄짓는 것을 일삼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에게서 나온 일을 제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3.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셨다 — 요일 4:10.

[요일 4:10]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 a.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희생 제물이시다 — 요일 2:2.

[요일 2:2] 그분은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시며, 또한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십니다.

- b.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에 대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히 9:28). 이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진정되었다.

[히 9:28]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짊어지시려고 한 번 드리지셨고,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4.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셨다 — 요일 4:9.

[요일 4: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 a.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피에 의해 우리를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의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다 — 엡 1:7, 요일 3:14-15, 요 5:24.

[엡 1:7]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요일 3:14-15]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거합니다.⁽¹⁵⁾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이미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b.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 요 1:29, 3:36, 10:10 하.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요 3:36]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수단입니다 — 요일 5:11-12.

[요일 5:11-12]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¹²⁾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 a.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들과 생명은 하나로서 나누어질 수 없다 — 요 11:25, 14:6, 골 3:4.

[요 11: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요 14: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골 3: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 b.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 요일 5:12.

[요일 5:12]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6. 아버지와 함께하시는 우리의 변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께서 성취하신 화해에 근거하시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변호하심으로써, 우리의 일을 돌보아 주신다 — 요일 2:1, 롬 8:34.

[요일 2:1] 나의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하시는 변호자께서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롬 8:34] 누가 감히 유죄판결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 C. 요한일서 4장 6절에 나오는 진리의 영은 성령, 곧 실재의 영이시다 — 요 14:17, 15:26, 16:13.

[요일 4:6]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요 14: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15:26]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요 16:13] 그러나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 그 영은 실재이시다. 이것은 그 영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온 존재의 실재이심을 의미한다 — 요일 5:6.

[요일 5:6]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실재이시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통해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안다 — 요일 3:24.

[요일 3:24]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통해 압니다.

- D. 요한일서 4장 13절과 14절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신 것과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계시한다.

[요일 4:13-14]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¹⁴⁾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지금 또 증언합니다.

1. 13절에서 “그분의 영에게서 나온 것을 주셨습니다.”(직역)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께서 차고 넘치시며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차고 넘치시는, 한량없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과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 빌 1:19, 요 3:34.

[빌 1: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요 3:3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며, 또 그 영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2. 우리의 아버지, 곧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을 주셨으며, 이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급이시다 — 고전 15:45 하, 고후 3:17.
[고전 15: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후 3: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E.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다 — 요삼 11.

[요삼 1:11]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지만, 악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을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1.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 욥 42:5, 각주 1.

[욥 42:5] 제가 주님께 대해 귀로만 들어 왔으나 /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신약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뵈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 하나님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조성되도록 하나님의 요소와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구속받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된 그분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다(계 22:4). 우리는 하나님을 뵈으로써 변화되는데(고후 3:18, 비교 요일 3:2),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뵈는 때 그분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의 옛 요소는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 신진대사의 과정이 변화이다(롬 12:2). 하나님을 뵈는 것은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권위로 그분을 대표하게 된다.

2.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문제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F.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되실 때, 그분은 보좌 위에 계시며 우주적으로 광대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분이시다 — 계 4:2-3, 5:6, 요일 3:19-21.

[계 4:2-3]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³⁾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와 같았으며,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은 비취옥과 같았습니다.

[계 5:6]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요일 3:19-21]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²⁰⁾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²¹⁾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며,

1. 우리는 우주라는 광대한 영역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안다 — 히 8:10-11.
 [히 8:10-11] 그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¹¹⁾ 그들 각 사람은 결코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2. 신약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 안에 거하기 위해 오신 삼일 하나님, 곧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 마음의 모든 속부분들 안으로 확산되기를 갈망하시는 분을 아는 것이다 — 엡 3:14-17 상, 요일 3:19-21.
 [엡 3:14-17]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¹⁵⁾ 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¹⁶⁾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요일 3:19-21]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²⁰⁾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²¹⁾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며,

3. 신약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상세하며 체험적인 방식으로 안다 — 요일 2:20, 27, 히 10:16.
 [요일 2:20] 여러분에게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바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요일 2: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히 10:16] “그날들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넣어 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4.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체험적인 방식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가!